

신임총장에게 바란다

새 총장님의 취임에 즈음하여 더 좋은 수업과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큼니다. 그래서 이번 5호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바람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가 교육내용과 환경의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 현동주 (생명과학부 04학번)



교양 교육 그 소통의 중요성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하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지식들을 조직하고, 얻은 지식이 어떻게 이용될지 예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공계든 인문계든 각 전문 지식을 조직하고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다. 하버드 대학교는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튼튼한 기초교양교육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전공이 섞여 있는 종합대학인 만큼 전공과 전공을 이어주는 교양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들도 교양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하나 (성악과 06학번)



교양 교육 홍보 강화 필요해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술 또한 하나의 언어인 만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양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교양 교육은 힘들기는 하지만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막상 교양 교육을 듣기 위해 수강신청을 하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과 특성상 많은 수의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강의를 들어야 좋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수업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각 전공마다 특별히 도움이 되는 교양 수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신입생들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다양한 교양 수업이 개설되어 더 많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들을 만한 교양이 없다?” “교양은 단지 학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교양은 물론 각 단과대학별로 개설하고 있는 일반교양강의를 듣고 난 후 수강생들의 평가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가득하다. 현재까지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는 강의들도 충분히 훌륭하고 유익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부 교과목의 경우 수년간 동일한 강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수업의 방식, 강의교재, 수강인원 등이 고착화되어 더 이상 학생들이 요구하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싶다.

교양과목은 전공과는 달리 해당 학문영역의 범위를 개괄하여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초소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양강의의 목적은 주어진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고 암기하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교양과목만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교적 적은 수강인원이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보다 밀도 있는 강의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 운영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의성격에 따라 기존의 3학점 교양강의의 수업시수와 학점을 1 내지 2학점으로 나누어 개설교과목수를 늘리고, 대형강의동 대신 소강의실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사와 교수의 수적확충도 요청된다. 강의형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형태, 외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통한 수업형태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양강의는 그 본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교양수업만큼은 다채롭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형태의 살아있는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외국어 수업의 과열 경쟁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입학 후 매학기 외국어 과목을 하나씩 들어봤다. 물론 커리큘럼이 빽빽한 것도 있었고 느슨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 내의 수업이었다.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수강생들 사이에 과잉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징후는 보였지만 외국어 과목의 경우는 특히 심했다.

상대평가제가 실시되자 학생들은 이에 자극을 받고 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상대평가제 전반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평가제 시행으로 외국어 과목들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다. 외국어 과목이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이나 해외거주 경험자들의 학점 텃밭이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외국어 과목이 전공 진입에 필수적인 인문대의 경우, 학점을 잘 받으려면 재수강을 하든지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고 와야 할 정도이다.

대학공부에서 외국어 능력은 원서독해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어 학습은 철저하게 도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학교에서도 외국어 수업을 일반교양에서 분리해서 학문의 기초라는 별도의 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외국어 수업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가로막는 듯하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학점 과열 경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낭비를 막았으면 한다.



일본어 수업 설치를 바란다.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일본학생으로서, 신임총장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교양과목으로 일본어 수업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울대에는 일본어수업이 “고급일본어” 하나밖에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이 많다.

동경대 교양학부에는 비록 “한국과”가 없지만 한국을 전공으로 택하여 공부할 수도 있고, 한국의 언어, 사회, 문화,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누구나 들을 수가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도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주 많음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서울대학생 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학생이야말로 임국을 제대로 알며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대학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님께서, 서울대학생에게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한일상호이해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학문의 기초를 파악하는 교양이 필요해

비록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경험한 바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만은 꼭 새로 취임하는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았으면 한다. 최근 하버드대학교에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강좌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강좌를 맡은 교수는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도 이러한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지식에만 파묻히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전공을 공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모든 전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철학 과목과 수학 과목 하나씩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신의 전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기초가 학부과정에서부터 탄탄히 다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